

01 교회소식

살아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다!

시공을 초월한 권능의 기도로 국내외 성도들이 각종 질병을 치료받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등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은사 집회

02 생명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시리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을 버려야 변함이 없는 영의 마음을 이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영적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

03 기획특집

부활체와 온전한 영체

천국 대기 장소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공중강림 하실 때 부활체로 변화하고 백보좌 대심판 후 각자 천국 처소에서 온전한 영체로 살아가다.

04 간증

멈추지 않는 권능의 역사

성령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 건강을 회복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간증.

# 만민뉴스

제990호 2023년 4월 2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환자를 위한 ‘은사 집회’, 실시간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지난 3월 24일 금요일아예배 시 진행된 환자를 위한 ‘은사 집회’가 GCN방송(www.gcntv.org)을 통해 위성, 유튜브, 인터넷으로 세계 곳곳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므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각종 질병을 치료받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아 전화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실시간 접수한 성도들의 간증이 이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 산후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 치료 ·

### “죽음에서 건져 주시고 새 생명 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일곱 살이던 1998년 12월 31일에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등록하였지만, 의무감으로 교회를 다닐 뿐 세상을 사랑하고 방황하면서 학생과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후 2017년, 아들을 출산하였는데 5월경부터 산후 우울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술을 마시니 알코올 의존증까지 왔지요. 이처럼 제 삶은 피폐해져 갔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2020년 7월과 12월에 지옥의 참상을 경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잠을 자는데, 제가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불의 뜨거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고,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그 뜨거움이 느껴져 저는 잠에서 깨고 말았지요. 이후 눈물로 회개한다고 하였지만 제 신앙생활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2023년 2월 15일, 결국 저는 산후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이 악화해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제게 다친 현실 앞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자 오직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처럼 간절히 찾는 저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0년에 경험했던 지옥의 참상이 떠오르면서 그때라도 제가 마음 중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눈물과 콧물이 범벅 되도록 통회자복하게 되었고, 친정어머니께 “하나님께 의지해 믿음으로 치료받고 싶어요.”라고 말씀드리니 “함께 기도해 아버지 하나님께 치료받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입원한 지 일주일만인 2월 22일에 퇴원하였지요.

저는 부평 지성전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며, 3월 6일부터 시작한 ‘작정 다니엘 철야 기도회’에 참석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동안 순종하지 않았던 ‘성경 읽기, 당회장님 저서 읽기, 금식, 설교 말씀 정리’를 해 나가니 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제 마음은 무척 편안했고, 약을 먹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증세 없이 잘 지냈지요.

무엇보다 아들(7세)이 변화되었습니다. 알코올 의존증에 걸린 엄마의 모습을 보며 충격받아 악몽을 자주

꾸고 깜짝 놀라 깨곤 하였는데, 최근 제가 아이에게 권능의 무안단물을 뿌려주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 기도를 들려주었더니 편안히 단잠을 잘 뿐 아니라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며 아동공과 때도 집중해 공부합니다.

그동안 제 삶은 짙은 어둠 속에 슬픔과 절망, 고통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으나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환한 빛의 공간에서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특히 지난 3월 24일, 은사 집회를 통해 실시간 간증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 간증을 통해 세상에서 방황하는 많은 영혼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를 죽음에서 건져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이수진 성도 (32세, 3세대 19교구)

· 자폐증 치료 ·

### “조카의 자폐증이 치료돼 행복합니다”



웨슬리 곤잘레스 성도 (31세, 칠레)

페루 까야오에 사는 제 조카 ‘쉴바스티안’이 세 살이 되어도 말 한마디를 못 하자 부모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껴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진단 결과, 놀랍게도 조카는 자폐증이었고 의사는 평생 자폐를 앓고 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식구들은 모두 슬픔에 빠졌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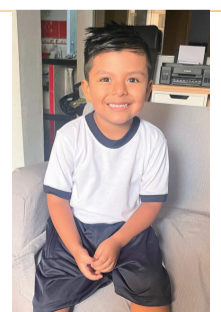
저는 조카의 소식을 듣고 아내와 상의하여

은사 집회에 참석해 조카를 대신해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은사 집회를 준비하였지요.

2022년 11월 25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은사 집회에 참석해 이수진 목사님의 환자 기도를 받을 때 저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조카의 사진 위에 얹고 기도 받았습니

다. 그 뒤 조카는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표현도 잘해 더 이상 기저귀를 착용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물체나 색깔, 숫자도 잘 구별하고 유치원도 다니기 시작했지요. 자폐증을 치료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10)

성경에 기록된 율법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만큼 빛의 자녀, 의의 자녀, 선에 속한 자녀, 사랑의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려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 가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여 모든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하나님께서서는 사랑과 공의로 이 땅에 인간을 경작하시는 분입니다. 만일 오래 참으시고 완전한 용서를 베풀며 모든 허물을 덮어 주시는 무한한 사랑만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공의가 없다면 무질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공의를 알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며 진정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공의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율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비롯해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하는 계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미워하지 말라, 죄를 버리라 등의 계명들을 총칭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공의, 곧 영계의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는 하나님의 법칙이지요. 곧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사망에 이르며, 순종해 선을 행하면 생명과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 2.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계명들을 지키는 것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비유 들어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인사는 공손히 해야 한다.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손발을 깨끗이 씻

어야 한다. 빨강 신호등이 켜질 때는 절대로 길을 건너면 안 된다.” 등 생활에 필요한 규칙들을 알려 주며 지키게 합니다. 자녀를 힘들게 하려고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질병이나 사고, 위험을 막아 주고 보호하여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들은 귀찮더라도 순종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부모를 기쁘게 해 드리려는 자녀는 항상 부모의 말을 명심해 당부한 대로 지켜 행하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염려를 끼치고 싶지 않고 부모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니 순종하는 것입니다.

육의 자녀를 둔 부모의 사랑도 이럴진대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계명을 주셨을까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와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신 대로, 계명을 주심은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 3.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응답과 축복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은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좇아서 타락해 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요일 2:16).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 정욕을 좇아 범죄하는 사람의 앞길에는 고난과 재앙이 임하고 결국은 사망이 기다릴 뿐이지요(롬 6:21). 곧 죄의 종이 되고 원수 마귀 사단의 주관을 받아 질병, 사고, 불화와 전쟁 등 온갖 고통 가운데 허덕이다가 영원한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는 무엇 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요일 3:21~22). 하나님께서는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모든 계명을 지키고 악은 모양이라도 벗어버림으로 온전히 거룩해지기를 원하시지요(롬 6:22 ; 살전 5:23).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기 원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원수 마귀에게 내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

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질병이나 사고를 만나는 등 시험과 환난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 4. 율법은 복된 길을 제시하는 사랑의 교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등불을 들고 가는 것과 같아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지킴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만큼 깨끗하고 선한 마음으로 변화해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게 되고, 그 마음을 닮은 만큼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지요. 곧 하나님 사랑을 알며 자신도 하나님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이 땅에서 경작 받는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을 제시하는 사랑의 교과서라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경작 받는 동안 재앙을 만나지 않는 방법과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은 지키지 않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시고자 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 5.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며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분을 보이셨지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밤낮없이 진리로 가르치셨습니다. 죄로 인해 질병과 연약함에 매인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 쉬 없이 일하셨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건 중의 하나가 바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을 때의 일입니다(요 8장). 하루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http://www.manminnews.com)

**만민중앙교회**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 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및 관련 문의: 02-818-7236

**| 이재록 목사의 부흥성회 설교집 |**

**URIM BOOKS**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

님께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며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므로 서로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부끄러워하며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나고 마침내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었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한, 다시는 율법을 어기고 범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여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해 동일한 방법으로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 6.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만큼 예수님을 본받아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죄인들을 위해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며,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는 고통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생명을 주셨지요.

이러한 십자가 사랑의 힘이 우리에게 임할 때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지 않고 율법의 잣대로만 엄격하게 측정해 외면하셨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 겸비한 마음으로 계명들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용서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본질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근본정신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선 자체이신 그 마음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들은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율법의 외적인 형식에만 치우치면서도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는다고 생각했지요.

오히려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 사랑을 전하며 참된 것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율법을 지키는다고 하면서 정작 마음에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계명들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 쉽게 판단하고 정죄

합니다. 그러니 자신에 대해서도 아직 버리지 못한 죄성들을 발견할 때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스스로를 정죄해 고통받고 쉽게 낙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긍휼과 사랑이 없이 형제를 정죄하는 율법주의를 원치 않으십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서 고통스럽게 율법을 지키는 것도 원치 않으시지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사랑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철저히 율법의 형식을 준행해도 그들의 영혼에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형제에게 행한 판단과 정죄로 인해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는 행악자가 될 뿐이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죄악을 버림으로 마음을 깨끗하고 변함이 없는 영의 마음으로 일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마음껏 받아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부활절 특집

## 부활체와 온전한 영체

사랑의 주님께서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주님께서서는 40일 동안 부활체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오백여 명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고, 장차 영광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 주님의 공중강림 이후 부활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 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부활체에 대해 알려 주시며 부활의 소망을 심어 주셨습니다. 썩지 않고 죽지도 않는 신령한 몸을 입은 부활체가 되면 육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으며, 손으로 만져지기도 하고, 호흡도 가능하며, 음식도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셨지요(요 20:19-29 ; 눅 24:42~43).

승천하신 주님께서 성도들의 천국 처소를 예비하신 후 공중에 강림하실 때, 먼저 주님을 믿고 무덤에 장사 된 자들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들의 영체와 결합해 부활체가 됩니다. 그 뒤를 따라 살아서 주를 믿는 성도들도 홀연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해 하늘로 올라가지요(고전 15:51~53).

부활체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33세의 신령한 몸으로서, 머리카락은 살짝 웨이브가 있는 금발이며 남자의 키는 약 190cm 정도, 여자는 170cm를 조금 넘습니다. 부활체가 33세의 모습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마치신 때로서, 인생의 절정기라 할 수 있고 가장 성숙하고 아름다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 영체와 온전한 영체

영체(靈體)란, 영의 고유한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한 대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각각 고유한 육의 형태를 입고 있듯이 영도 고유한 형태가 있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언제 죽음을 맞이했느냐, 얼마나 성결됐느냐에 따라 영체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사망한 시점이 어린아이 때면 영체가 어린아이의 모습이며 청년 때면 청년의 모습, 노년 때면 노인의 모습입니다.

영체의 모습으로 천국 대기 장소인 낙원에 머무는 영혼들은 주님의 공중강림과 부활의 때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러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부활체로 변화해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 잔치를 한 후, 지상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게 됩니다(계 19:1~20:10).

이후 백보좌 대심판을 통해 각자에게 정해진 천국 처소로 가게 되는데, 그제야 온전한 영체를 이뤄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계 21~22장).

### 부활체와 온전한 영체의 차이점

과연 부활체와 온전한 영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온전한 영체는 부활체의 위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의 성결한 정도뿐만 아니라 백보좌 대심판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상급과 영광, 권세가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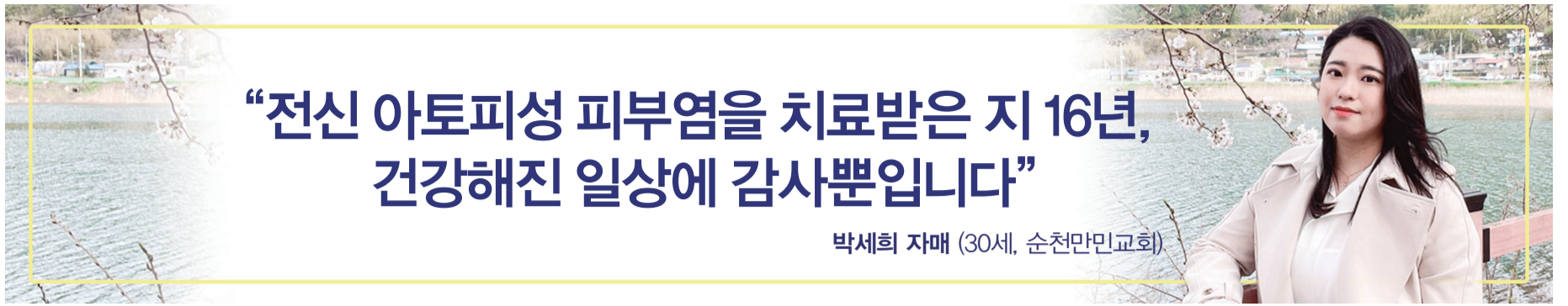
따라서 천국에서도 온전한 영체를 보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 말씀대로 살았으며 충성하고 헌신했는지, 천국 처소가 어디인지, 같은 처소 안에서도 얼마나 상급과 영광이 큰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부활체라는 중간 과정을 겪게 하신 이유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체라는 중간 과정을 겪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원히 살아갈 천국과 7년 혼인 잔치를 하는 공중은 공간의 밀도나 시간의 흐름 등 많은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몸을 입은 부활체와 천국 대기 장소에서 거하는 영체

가 느끼는 영의 공간의 느낌은 많이 달라서 마치 꿈과 현실의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체가 영의 공간에서 갖는 느낌이 꿈과 같다면, 부활체는 영의 공간을 현실로써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부활체라는 중간 과정을 겪어야 영원한 천국에서 온전한 영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 “전신 아토피성 피부염을 치료받은 지 16년, 건강해진 일상에 감사뿐입니다”

박세희 자매 (30세, 순천만민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전신 아토피성 피부염을 치료받은 지 16년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재발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지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다섯 살 때부터 시작된 아토피성 피부염은 이따금 여름철이면 팔다리의 접히는 부분에 생겼다가 사라지곤 했

때어지면서 상처가 같이 떨어져 또다시 피와 진물이 나니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악순환, 힘들고 아픈 날들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토피성 피부염 중 아주 심한 증세라고 하였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믿음으로 치료받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때마침 만민매거진에서 피부병

뒤 버글버글했던 진물이 마르고 가려움증도 사라졌으며 10월, 두 번째 기도를 받은 뒤에는 온몸에 딱지가 생기더니 떨어져 나가고 새살이 돋았지요. 11월, 세 번째 기도를 받은 뒤 마침내 아토피성 피부염을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으며, 밥을 먹고, 여름에는 반소매와 반바지를 입을 수 있을까요?

어려서부터 시작된 전신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고통과 슬픔 속에 있던 제게 먼저 다가와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사랑하시는 당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는데, 2007년 6월에 또 그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8월 팔다리 전체와 귀, 얼굴까지 무섭게 번진 것입니다.

저는 가려움을 이기지 못해 긁고 또 긁고, 피가 날 정도로 긁었으며 잠을 자고 일어나면 베개와 침대 커버는 피와 진물로 범벅되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부었고, 입을 조금만 벌려도 찢어지니 말할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진물로 인해 속눈썹과 피부가 달라붙어 손으로 벌려야 눈을 뜰 수 있었고, 옷을 갈아입을 때는 달라붙은 옷이

간증이 많이 다뤄져 그것을 보면서 당회장님 기도로 저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무안단물(출 15:23~25)을 상비약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환부에 수시로 뿌렸습니다. 몸에 열감이 심했기에 무안단물을 뿌리고 나면 시원했고, 가려움증도 참을 만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더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지요.

기도와 금식으로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당회장님께 기도 받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과 함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2007년 9월, 당회장님께 첫 번째 기도를 받은

## “대상포진을 치료받았습니다”



이지원 집사 (53세, 1대대 6교구)

2023년 1월 설 명절 이후 허리가 빠근하고, 어지럽고 피곤했습니다. 25일에는 컨디션이 더 안 좋아지고 왼쪽 허리 부분이 바늘로 콧촉 찔리는 느낌이 들었지요. 28일, 증세가 더 심해져 몸을 움직이기조차 힘들었고 계속 누워있고 싶었습니다.

1월 29일 주일, 아침에 샤워하는데 왼쪽 허리 부분과 엉덩이 쪽에 물집이 생긴 것을 보게 돼 그제야 대상포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예배 후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 받을 때 레이저로 피부를 태우는 것 같았고 바늘로 콧촉 찔르는 통증이 줄어들자 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고 계신다고 확신했습니다.

다음날부터 주일 예배 말씀을 아침저녁으로 상고하며 기

도하니 내가 옳다 하는 의로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이 떠올라 회개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든 저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자 하였지요. 제가 한 말에서 잘못된 것을 떠올리며 회개했고, 고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자 주 안에서 저를 발견해 변화함으로 좋은 천국으로 들어가 하시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깨우쳐지면서 많은 눈물이 흘렀고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마침내 2월 3일, 아침에 일어나보니 신기하게도 남아 있던 통증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상포진이 있던 부위는 까맣게 변해 딱지가 생겨 있었지요.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성령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어방동1099-2 JJ빌딩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010-6425-8705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령천서로 57 광명빌딩 7층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3927-7526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6320-5984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547-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환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예천동 650-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장천동 팔마로11-5 3층 ☎061)745-1117, 010-66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청문로 129 향야빌딩 3층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망마로 10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4-5816, 010-4849-1479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6772-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거룡2길 53-1 2층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330-31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9636-797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